

“답 없는 정부, 7월 총파업으로 끌어낸다”

노동중심 산업전환 총파업 2차 현장순회 시작 ... 한국지엠,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 만나

금속노조가 7월 총파업 일정을 확정하고, 파업 조직을 위한 두 번째 현장순회에 나섰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28일 2차 현장순회 첫 일정으로 인천 부평 한국지엠지부를 찾았다.

윤장혁 위원장은 한국지엠지부 간담회를 마치고, 한국지엠 부평공장 1식당 앞 중식 선전전에 참여해 조합원들에게 7월 총파업 투쟁 참여를 호소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산업 대전환 시기에 금속 조합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 7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려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고용 문제에 관해 아무런 대책없이 산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지난 6월 7일 금속노조는 정부에 노정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아무 답변이 없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다가오는 7월 18일 주·야 각각 6시간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한다”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7월 총력투쟁을 함께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6월 29일 총파업 조직 2차 현장순회 2일 차 일정으로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을 만났다. 노조는 지회 간부 간

담회와 출퇴근 선전전을 통해 7월 총파업 총력투쟁 참여를 호소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등의 노동개악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라면서 “금속노조는 심각히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조합답게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찬우 수석부위원장은 “쟁의권을 확보한 동지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총파업 투쟁에 적극 임하고,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동지들은 최대한 복무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반드시 7월 20일 서울 도심과 전국에서 총파업 총력투쟁을 위력적으로 전개해 일방적인 자본 중심 산업전환과 윤석열 정부 정책을 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현장순회단은 6월 30일



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에서 총파업 조직 선전전을 이어갔다. 노조 현장순회단은 출근선전전, 점심선전전을 통해 기아차 광주지회 동지들이 자본·정권 주도 산업전환 정책 폐기 투쟁의 선봉에 서서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